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절대적인 시비(是非)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시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요청됩니다. 이러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심재(心齋)의 수양을 해야 합니다. 심재의 수양으로 모든 인위적인 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인간의 질곡을 해결하고 사회의 태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① 내 마음속에서 인위 조작적인 것을 지우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②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여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선악미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 ④ 무위의 덕으로 나라의 규모를 키우고 백성 수를 많게 하여야 한다.
- ⑤ 삼학(三學)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수양을 반복해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한다.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다. 을: 인간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다. 즉 각각의 것은 나에게서는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이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이다.
(나)	

<보 기>
 ㄱ. A: 사물의 가치는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가?
 ㄴ. B: 덕은 지식이며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가?
 ㄷ. B: 지혜만으로 인간 정신의 탁월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
 ㄹ. C: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없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최고선은 영원한 생명이며 최고악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국(神國)의 시민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으며 신을 따른다.
 을: 신은 지성과 의지를 통해 사물들이 존재하도록 창조했다. 신은 제1 원인이며, 이성적 피조물의 최종 목적은 본질에 따라 신을 보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 ② 갑: 도덕적 선행만으로도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③ 을: 악을 실체가 아닌 선의 결여 상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을: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⑤ 갑과 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질서와 법칙을 인식할 수 없다.

4.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지(知)와 행(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한다. 이는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굳이 선후를 논하면 지가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이 중요하다.
 을: 지(知)는 행(行)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지의 진절독실(眞切篤實)한 면이 바로 행이고, 행의 명각정찰(明覺精察)한 면이 바로 지이다.

<보 기>
 ㄱ. 갑: 이치(理)는 마음 밖의 사물(物)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ㄴ. 을: 지속적인 수양을 하지 않아도 양지(良知)는 상실될 수 없다.
 ㄷ. 을: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악행의 시작이다.
 ㄹ. 갑과 을: 양지(良知)는 모든 사람이 지닌 선한 본성(性)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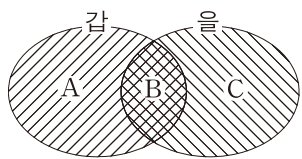
갑: 모든 존재는 신 안에 있으며 또한 신에 의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다. 신의 바깥에서 자기 자신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을: 산술과 기하학이 다른 학문들보다 더 확실하다. 이 두 학문은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갑: 인간은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양태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 ② 갑: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 ③ 을: 철학의 제1 원리는 방법적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도출될 수 있다.
- ④ 을: 인간이 알아낸 모든 진리는 끊임없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⑤ 갑과 을: 실체가 그 자체로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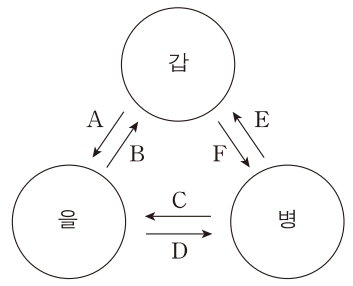
(가)	<p>갑: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理氣之妙]. 이는 기의 주재자이고, 이는 기를 타는 바이다.</p> <p>을: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ㄱ. A: 발할 수 없는 이(理)는 주재성을 가질 수 없다.
 ㄴ. B: 인의예지는 모두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는 덕이다.
 ㄷ. C: 사단은 칠정과 달리 성(性)에서 발현한 정(情)이 아니다.
 ㄹ. C: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과 사단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사회사상가 갑과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최상의 공동체인 국가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p> <p>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p> <p>병: 공공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연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p> <p>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국가는 법을 어긴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D: 행정권보다 입법권이 우위에 있는 권력임을 간과한다.
 ③ C: 국가의 주권자와 입법권자의 범주는 동일해야함을 간과한다.
 ④ E: 국가는 사익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 아닌 인위적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8.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하되 백성이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따르고 정에 순응해서 멋대로 성내기 때문이다.

- ① 사람의 본성은 인위적인 노력을 쌓아 획득된 것임을 간과한다.
 ② 왕도 정치의 차선책으로 패도(覇道) 정치가 정당함을 간과한다.
 ③ 하늘이 내린 도덕 규범에 따라 성(性)을 교화해야함을 간과한다.
 ④ 소인은 화성(化性) 이후 기위(起爲)하여 도에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
 ⑤ 모든 사람은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9.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부에 의한 억압이나 타인 때문에 어떤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우리는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는 주인이 존재한다면 종속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드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 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 기> —

ㄱ. 갑: '~할 자유'로 인해 '~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ㄴ. 을: 법치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ㄷ. 을: 비자의적 지배의 부재와 비지배의 자유는 양립불가능하다.
 ㄹ. 갑과 을: 자의적 간섭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심(四心)을 미루어 밖에 있는 사덕(四德)을 이루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덕을 끌어당겨 안에 있는 사심을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에 나아가면 바로 인(仁)을 얻을 수 있고, 수오지심(羞惡之心)에 나아가면 바로 의(義)를 얻을 수 있다. 사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며 사람이 본래 지닌 선한 마음이다.

— <보 기> —

ㄱ. 인(仁)은 기호이자 덕이며, 측은지심의 확충을 통해 생긴다.
 ㄴ. 형구(形軀)의 기호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본성[性]이 아니다.
 ㄷ. 인간이 지닌 욕구는 생존과 도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ㄹ. 측은지심은 타고난 감정이며 인(仁)의 실마리이자 시작점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는 인류의 복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덕이며, 그리고 실제로 정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인위적 발명품일 뿐이다. 우리 자신의 이익 또는 친구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사회의 복리는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락을 주므로, 공감은 우리가 모든 인위적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며 모든 인위적 덕에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제공한다.

—<보 기>—

ㄱ. 도덕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ㄴ. 덕(德)과 달리 악덕(惡德)은 선형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덕과 악덕의 구분은 우리가 갖는 관념 자체에 의한 것이다.
 ㄹ. 인간의 이성은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정념에 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을: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쾌락과 고통은 인간을 지배하는 두 군주이며, ㉡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 모든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 오직 보편화 될 수 있는 준칙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 평등의 이념이 도덕 원리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어느 단계에서 당시의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이 생산관계 혹은 소유관계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형태로부터 생산력의 발전을 저지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 혁명의 시대가 등장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은 법률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 한마디로 말해 이데올로기적 형태를 통해 표현되며, 또한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통해 투쟁함으로써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을 해결한다.

- ① 경쟁에 기반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② 분업은 생산력을 약화시키며 계급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③ 투쟁의 과정에서 폭력을 배제해도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④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물신 숭배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⑤ 혁명을 통해 계급간의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1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는 지혜이자 덕이므로 정의로운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고 열등하다.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을: 모든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애초부터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도나 살인 같은 행위가 그런 것이다.

- ① 갑: 철인왕은 시민의 의견과 이익에 개의치 않고 통치한다.
 ② 갑: 선의 이데아는 존재하는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다.
 ③ 을: 실현된 행위와 달리 내면의 감정은 그 자체로 악할 수 없다.
 ④ 을: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지식의 결여가 원인이 아닌 악행이 존재할 수 있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주에서 생성되는 사물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에게,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들 중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제공하지 않도록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빵과 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한다.

- ① 갑: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상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갑: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다.
 ③ 을: 어떤 욕구의 충족이 필수적이어도 그 욕구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④ 을: 정의는 쾌락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허구적 개념이다.
 ⑤ 갑과 을: 이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엄을 전수하는 사람도 관문을 배워야 한다.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을: 지혜(慧)는 본체(體)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用]이므로 선정[定]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① 갑: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이 필요하다.
- ② 갑: 내적인 교(敎)와 외적인 선(禪)을 분리해서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
- ④ 을: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중점에 두고 닦아야 한다.
- ⑤ 갑, 을: 열반에 들기 위해 참선보다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다. 이 병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침범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죽음에 의한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을: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이다. 자유롭더라도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 ① 갑: 보편타당한 객관적 진리로 영혼의 구원을 도모할 수 없다.
- ② 갑: 윤리적 실존을 거치지 않고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③ 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불안에서 벗어난다.
- ④ 을: 인간에게 본질을 부과하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 ⑤ 갑과 을: 이성을 통해 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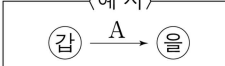
갑: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해탈할 수 없다.
 을: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생멸(生滅)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도 둘이 아니다.

—<보 기>—

ㄱ. 갑: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자각은 지혜라 할 수 없다.
 ㄴ. 갑: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ㄷ. 을: 존재와 현상은 모두 우리의 마음[心]이 지어낸 것이다.
 ㄹ. 갑과 을: 불성을 형성하여 윤회를 끊고 입적(入寂)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동양의 도(道)로써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천하를 평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거행할 수 있으면 저들의 기를 행하는 것도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쉽다. 을: 양이(洋夷)들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옳고 그림의 구분이 없으며 한울님을 섬긴다고 할 만한 단서가 없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잘되기를 꾀할 뿐이다. 그들의 도는 허무에 가깝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right: 10px;">갑</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px;"> \xrightarrow{A} \xleftarrow{B}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left: 10px;">을</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right;"> <범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right;"> <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 ① A: 서양의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에 어긋남을 간과한다.
- ② A: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③ B: 이상 세계[後天]는 현세에서 실현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B: 모든 인간은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⑤ B: 어떠한 종교도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만 하며, 국가들의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을: 혼란의 출발점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긴다면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① 갑: 평화 연맹의 수립을 위한 국가 간 합병은 정당한 것이다.
- ② 갑: 평화 조약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전쟁 상태가 존재한다.
- ③ 을: 전쟁은 패배한 나라에게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 ④ 을: 겸애와 예악을 전파시켜서 침략 전쟁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희생자가 발생하는 모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 문제지의 저작권은 Unkicetic에게 있습니다.